

2024년도 경상남도 동부권역 문화유산 돌봄사업 11월 추진실적 보고(창원시)

2024. 12. 2. 기준

1 개요

- 건 명 : 2024년도 경상남도 동부권역 문화유산 돌봄사업 추진실적 보고
- 수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문화유산돌봄센터
- 조사기간 : 2024. 11. 1. ~ 2024. 11. 30.
- 조사대상 : 경상남도 동부권역 문화유산 돌봄사업 대상문화유산 총 431개소
- 모니터링 :
 - 2024년도 정기모니터링
 - 문화유산 유형별·종별·상태별 적합한 모니터링 기법과 장비 활용
- 수 행 건 : 총 2건



대상지역	문화유산 (개소)
창원시	41
통영시	24
김해시	21
밀양시	88
거제시	34
양산시	22
의령군	55
함안군	36
창녕군	75
고성군	35

<경상남도 동부권역 문화유산 돌봄사업 관리대상문화재 행정구역별 분포도>

2**11월 시·군별 모니터링 실적**

■ 창원시 11월 모니터링 실적

연번	수행일자	문 화 유 산 명	일상 관리	경미 수리	모니 터링	돌봄 활동 의	조치 사항 없음
1	2024.11.22.	창원 신방리 음나무 군		1		1	5
2	2024.11.22.	창원 최윤덕 묘역			3	1	4
합계		2 건		1	3	2	9

3

11월 시·군별 모니터링 세부의견

■ 창원시 11월 모니터링 세부의견

연번	수행일자	문 화 유 산 명	하위문화유산	세부의견	비고
1	2024.11.22.	창원 신방리 음나무 군	음나무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음나무의 경우 기둥부위에 구멍이 나 있어 빗물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부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무수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당해문화유산은 서측 방향(뒷산)으로 뿌리가 깊고 길게 뻗어 나가 있으며 현재 철지주 3개를 설치해 급경사면에서도 도복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24.2.8 모니터링시에는 편책의 훼손이 미미한 정도였지만 여름 장마철을 지나면서 훼손 부위가 커졌음. 경사지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편책의 일부 부분이 훼손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경미수리(보호울타리 등)를 통해 추기훼손을 방지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흙에 묻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경사지 중간지점에 가로방향으로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축을 쌓아 놓았으며, 도로 옆으로는 하단의 흙을 영산홍을 심어 놓았음. - 당해문화유산의 전면 하단과 좌측면, 우측면에 철책을 설치해 봄철 음나무순을 채취하려는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음. - 당해문화유산의 배면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습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나무의 기둥과 주변에 이끼류의 훼손을 입고 있음 	돌봄 활동 의

연번	수행일자	문 화 유 산 명	하위문화유산	세부의견	비고
				- 배면과 좌측면으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의 물길을 유도하기 위한 배수호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측면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였음. 이 때문에 우측면에는 주변 수목의 뿌리가 드러나 있음	
2	2024.11.22.	창원 최윤덕 묘역	묘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합장묘의 면 좌측 모서리 부위의 잔디 훼손이 일부 확인 되었으며, 배면과 우측면, 좌측면에서 야생동물의 소행으로 보이는 구멍이 다수 확인되어 전문보수가 필요해 보임. - 24.3.29과 24.7.23 모니터링시에도 요청되었지만 장군묘 전면 우측의 기단석과 묘비가 남측방향으로 9.5도 기울어 있으며 10cm 밀려 나온 상태임. 향후 상부의 토압이 증가하면서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 - 장군묘와 정경부인의 묘 전면의 좌.우측에 있는 문인석은 토사에 묻혀 있던 기단부를 일정부분 드러내서 전문보수(세척)가 이뤄져 고유의 미적 가치를 되찾은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습도가 높고 울창한 숲 속에 당해유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석조유물의 상태를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장군묘와 정경부인 묘의 봉분도 수리가 이뤄졌으며, 현재는 잘 정리되어 있고 보수과정에서 새로 식재된 잔디의 활착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육안 관찰되지만 주변의 	돌봄활동의

연번	수행일자	문 화 유 산 명	하위문화유산	세부의견	비고
				<p>채광과 습윤 상태, 과거 야생동물의 피해가 있었던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윤덕장군 부모 합장묘의 문인석은 전문수리(세척)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면 좌측의 문인석의 경우 흑색변색이 전면과 좌,우측면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부모 합장묘의 좌측 기단 밑에 3조각으로 깨진 비신이 훼손된 채 땅속에 파묻혀 있으며 비좌는 좌측편에 기단위에 잔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복원 여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계모 안동권씨 묘의 우측면에 야생동물의 소행으로 보이는 굴이 다수 확인되며, 전면과 우측면에서는 토사유실로 인한 잔디상태가 불량하여 추가적인 봉분의 훼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계모 안동권씨 묘 좌측 언덕에는 훼손된채 땅속에 파묻혀 있는 비신이 확인되어 이 역시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치단체에서는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